

직업성 암을 예방합시다



양길승

1. 들어가는 말

지난 10월 8일, 신문에는 국내 최초의 직업성 암 환자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보도가 실렸다. 단열재로 쓰이는 석면을 파이프에 감거나 이음새를 메우는 작업을 18년 8개월간 계속해 온 55세의 여자가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받았다.

바로 그 전날에는 벤젠이라는 유기용제(기름때를 없애기 위해 쓰는 것)를 쓰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라는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각각 1면과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되어 직업성 암에 대한 언론의 큰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데다가 직업병에 대한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암은 현재 제일 많은 사망원인이고 또 발견될 때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서 누구나 한번쯤은 걱정을 해보는 현대의 최대 관심 질병이다.

직업병은 흔히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병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컴퓨터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서 VDT증후군이라는 신종 직업병으로 시달리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직업과 관련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

람이 많아져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직업병은 진단의 어려움이나 기피 때문에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거의 전부여서, 직업병하면 특수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직업병 환자들이 자신이 직업병 환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환자의 질병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밝혀보려는 의료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 비교해 보아도 직업병 환자수가 턱없이 적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모든 암의 80~90%는 환경에 의한 영향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람이 처한 환경의 중요한 한가지가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작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로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암 즉 직업성 암은 외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고 전체 암 환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광에 생기는 암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된 국내 최초의 암 인정 등의 기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사실은 직업에 의해 얻은 병이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악성중피종만

**직업병은
흔히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VDT 증후군 등
일상적인 작업과
관련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립의료원에 보고된 같은 암의 환자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만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보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사능에 쯤일 수 밖에 없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어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노동자 건강관리를 해온 노동부나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번 직업성 암 인정을 계기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암은 어느 질병보다도, 치료보다 예방을 해야 하는 병이다. 따라서 직업성 암도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떠한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지, 어떤 경로로 몸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아두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2. 암 유발 물질과 작업

지금까지 알려진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어있는 물질은 크롬, 니켈, 비소 같은 금속류도 있고 벤젠, 벤지딘, 베타 나프틸아민,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스 클로로메틸 에테르(BCME), 염화비닐 같은 화학물질,

특집 직장인의 건강

전리방사선이나 자외선, 석면, 피치, 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과 코오크스나 발생로가스 등에서 나오는 추출물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 중요한 몇가지에 대해 어떤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암과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써 보겠다.

가. 석면

석면광산에서 일하거나 석면을 가공하는 작업, 석면을 설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석면 가루를 폐로 들이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

나. 벤젠

벤젠은 유독한 유기용제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름때를 없애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도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톨루엔 같이 덜 유독한 유기용제에도 상품화되어 있는 것에는 15%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벤젠은 백혈병(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킨다.



암은 어느 질병보다도 치료보다 예방이 앞서야 하므로 직업성 암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와 후두, 폐에 암을 일으킨다.

마. 전리방사능

전리방사능에 폭로되면 백혈병, 폐암, 피부암, 골육종 그리고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다.

바. 자외선

용접 등 자외선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의해서는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

사. 기타

- 벤지딘, 베타 나프틸아민(염료)에 의한 방광암
- 벤조트리클로라이드에 의한 폐암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에 의한 폐암
- 염화비닐에 의한 간암
- 피치, 타르, 아스팔트 등에 의한 피부암
- 코오크스, 발생로가스 제조공정에서의 폐암

다. 크롬

크롬산염이나 중크롬산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흡입된 분진은 폐암을 일으킨다.

라. 니켈

니켈 정련 작업에서 흡입된 분진은

3. 예방을 위하여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이 어떠한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화학물질은 그 성분이 무엇이고 어떠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지 작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게시를 보고 내용을 잘 알아두는 일이다. 만약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게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유해물질 특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작업장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허용농도 이상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환경측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주와 노동자의 무관심이나 무지 때문에 작업환경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고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다.

작업환경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전문가 만이 아니라 기업주와 노동자가 같이 알고 있어야 한다.

허용농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일단 위험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또는 환경을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이
어떤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고장 등의 사태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다 하여도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위생과 생활습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석면의 경우 노동자가 흡연을 하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작업장 내에서만이라도 반드시 금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는 일년에 한번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특수검진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제대로 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해야 하는 작업 전환 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는 그 작업을 그만둘 때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수첩을 교부받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란다. ㉓

〈필자=성수의원장·산업보건종합센터
실행위원장〉